

책으로 기억하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전두환 쿠데타군부가 쏘아올린 바벨탑
전용호, 이재석 저 | 굿북올림사 | 1만 9500원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다양한 5월 관련 서적이 출간됐다.

먼저 전용호, 이재석이 쓴 '전두환 쿠데타군부가 쏘아올린 바벨탑'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초 공개한 오월의 상황을 진실 그대로 담아놓은 국내 최초의 도서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게 된 시대배경, 전개과정, 진상규명의 3단계로 나눠 '5·18역사교과서'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요약했으며 이에 오월항쟁 동안 벌어진 참상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사진을 수록함으로써 오월의 진실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 책은 1980년 당시의 정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역사적 팩트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40년이 넘었지만 극우보

무명C의 노래
장주선 저 | BOOKK(부크크) | 1만4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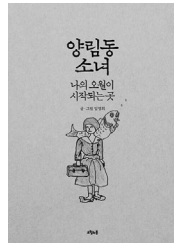


수세력들은 지금도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소위 '광수'라는 '북한 특수군 침투설' 등을 제기하며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 정권과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진상이 많이 밝혀져 왔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교과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일어난 시대배경으로 대한민국 건국부터 4·19혁명, 5·16쿠데타까지 다루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은 1980년 5월의 상황은 물론 518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까지 성실하게 서술돼 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고백까지 최근의 5·18 전개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저자 장주선의 '무명C의 노래'는 5·18

양림동 소녀
임영희 저 | 오월의봄 | 1만6800원



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한 유니버스 구성의 4부작 창작물이다. 이 책은 그중 전반부인 1, 2부를 수록했다. 1부 무명C의 노래에서는 탄흔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어조로 전개된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은 광주시민의 수만급 많은 총알을 사용했다. 그 총알들은 사람과 자동차와 벽과 천장과 가구와 들녘의 돌과 나무 등으로 날아 갔고 그중 상당수는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 탄흔들은 정부 관계자의 노력과 과학 기술자와 수사관의 손길을 거쳐 그때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2부 간헐된 젊음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518미터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만 사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수학의 자연 상수 e를 비롯한 오일러 항등식과, 시공을 초월한 물리학의 개념들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주인공들의 체험과 기억 등과 관련돼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양림동 소녀'는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임영희씨가 쓴 책이다. 여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나의 생애가 있다. 1956년 보배의 섬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 양림동에서 생애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맞이했던 임영희의 삶이 그렇다. 56세의 나이에 급성뇌졸중으로 장애를 갖게 된 그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크레파스와 사인펜을 집어들었다. '그림의 의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비된 오른손 대신 서투른 왼손이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삶의 굵직한 마디마디에 새겨진 곡진한 이야기들은 그린 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림 속에서 고

개를 내민다.

'양림동 소녀'는 긴 세월 속에 감춰진 과거를 더듬어보는 시간여행이다. 시간을 거슬러 돌아간 그곳에선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임영희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광주로 유학 간 이야기, 그곳에서 문학과 글에 대한 꿈을 키우는 이야기, 그 꿈의 터전이 된 양림동에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을 시작하고 5·18항쟁에 시민군으로 참여하게 된 이야기, 노년기에 장애인 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고도 명랑히 풀어낸다. 임영희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그 개인의 역사를, 또한 우리 모두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잔란한 오월공통체와 마주하게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맨 처음이 궁금해? 그것마저 알려주마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최초의 것들
김대용 | 노마드 | 3만1000원



우리는 무심코 입고 먹고 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지금의 안락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정착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

다. 개울가에서 손뽌래하던 우리 선조들에게 세탁기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을 것이다. 인간을, 특히 여성을 그 지지기반한 가사노동의 개미지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한 주인공이니 말이다.

통조림은 또 어떤가? 전쟁 때문에 탄생한 이기가 막힌 물건이 오늘날 인류의 식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존재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거기에 다소곳하게 담긴 내용물도 무궁무진하다. 통조림의 무한변신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할 따름이다. 이처럼 기발한 상상과 엉뚱한 실수로 탄생한 그 무엇이 인류의 삶을 바꾸어왔다.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최초의 것들'에는 이 같은 문화의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일구어낸 온갖 문화적 산물 중 의식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나치거나 몰랐던 이야기들에 주목했다.

또한 이 책은 '최초'를 중심으로 그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최초는 영원하고 오직 한 번만 존재한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문화의 역사이자 인류의 역사이며, 그것이 탄생하고 자란 곳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의(衣)_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들의 유래와 에피소드'에서는 복식과 액세서리, 세탁기와 재봉틀 등에 대해 서술했다. '제2부 식(食)_주식과 먹거리에 얽힌 이야기들'에서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통조림의 탄생과 자기의 전래 과정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3부 주(住)_생활하고 일하는 곳 그리고 문화공간의 변천사'에서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유원지,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카페와 바 등 문화공간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다. 이곳들은 주거지 못지않게 사람들이 모여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필수공간이기 때문이다. 도선인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둔 한국사회에 필요한 대비책

돌봄의 사회학
우에노 지즈코 | 오월의봄 | 4만8000원



한국은 2017년 고령 사회(고령자 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에 돌입했다. 빠른 늙든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이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 즉 인젠가는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이 때문에 1994년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페미니

스트인 우에노 지즈코의 저서 '봄의 사회학'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도 소개된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독신의 오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일찍부터 '돌봄' 문제, 즉 '돌봄의 사회학'을 고민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령자 돌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시작은 2000년 4월 일본에서 시행된 개호보험제도이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저자는 이를 '가족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가 고령자 복지를 '온정주의에서 계약으로', 또 '시혜에서 권리'로 극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자를 돌봄 책임을 가족의 책임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켰

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점은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천 면에서 모두 탁월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그간 이뤄진 '돌봄 이론'에서는 '젠더 편향'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인권과 페미니즘이 가미된 정교한 이론적 전개를 펼친다. 즉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주로 있었고, 여기에서 '여성의 관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페미니즘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노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살핀다.

도선인 기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1가지 심리실험 (일과 휴식편)

나이토 요시히토 글 | 사람과 나무 사이 | 1만6500원
뇌과학, 정신의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자들의 흥미



롭고도 기상천외한 81가지 심리실험을 통해 '욕망'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조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개인과 집단의 미묘한 심리가 작동하며 일과 휴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지 등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이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든 모두 '일'과 '휴식'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다. 심리실험 이야기를 읽어 가다 보면 독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내면에 숨어 있는 다양한 욕망과 니즈의 실체를 간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를 건너 서로를 만났고 이 삶을 함께하고 있어

최하늘 글 | 알레 | 1만 9800원
반려동물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은 대개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삶에서 반려동물이 이렇



게나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 상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된다.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이 책에서는 반려동물과 이별한 열 명의 반려인을 만나 상실과 슬픔을 겪어내는 애도의 과정을 그대로 글로 담았다. 반려견, 반려묘를 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려조, 반려묘(卵)와 이별한 사람들의 상실과 슬픔, 애도의 이야기를 실었다. 저자는 2015년부터 펫로스 상담소를 만들고 문적인 펫로스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격언집
한상기 엮음 | 푸른영토 | 2만2000원

아프리카 대륙은 인류가 처음으로 발상한 곳이다. 그곳에서 태초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식물을 작물화하여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다.



아프리카 격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초의 인간이 전승한 문화, 철학, 지혜, 경험의 산물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장로 체제에서는 격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로들은 이 격언들을 인용하여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한다. 또 도덕적인 가치와 행동 방식을 가르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민족 문화를 전달한다. 책에 수록된 아프리카 격언을 읽다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